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포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회설립 5주년 기념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

농수산물·먹거리·위탁판매품·생활용품 등 다양
23일(수) 12시 30분 ~ 24일(목) 오후 8시 교회당서

23일, 24일에 교회당으로 오면 옷, 전자제품, 생활필수품을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개장, 호박죽 등도 마련되어 있어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바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가 23일(수) I부 예배 후(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리기 때문이다.

교회설립 5주년 행사의 하나인 이번 바자는 특히 여느 바자와는 달리 우리교회와 자매관계에 있는 농어촌 자매교회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직송해 와 가을의 풍성함을 더해 주고 있다. 품목도 경북 영양 고추, 충북 괴산 오미자와 전남 완도의 건미역, 마른멸치, 구운 김, 멸치액젓 등 각종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특성상 재고처리가 곤란하여 바자를 주최하는 남녀전도회에서는 일단 주문에 의해 판매하고는 있으나 필요하신 분은 행사 기간 중 언제라도 주문하면 물론 구입이 가능하다.

또 스포츠용품, 의료기구, 침구, 각종 의류 등 위탁판매품들도 교회당 앞과 2, 3층에서 판매된다.

중고물품 매장도 역시 이번 바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장터 중 하나. 가끔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을 붙인 멋진 옷이 나와 먼저보는 사람의 입을 벌어지게 하기도 한다. 이 매장은 기존의 ‘모음과 나눔의 장’에서와 같은 형식으로 열리게 되어 익숙한 코너다. 성도들이 기증한 옷, 주방용품, 생활필수품, 잡화, 서적, 학용품, 가전제품, 가구 등 각 가정에서 사용가능하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한 물건들이 전시되고 있다. 물품은 행사 중에도 계속 접수된다. 물론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깨끗하게 손질되어 기증되기 때문에 바로 쓸만하다.

판매시간은 개장 첫날인 23일은 I부 후인 12시 30분부터 수요일 II부 예배가 마치는 오후 9시까지,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한편 빼놓을 수 없는 코너는 먹거리장터.

장소	취급품목
교회당 앞 (주차공간)	농수산물, 먹거리(빈대떡, 떡볶이, 식혜), 김치, 젓갈, 밀반찬, 건강식품, 자유판매대(위탁판매품), 생활필수품, 여성의류
2층	남성의류, 책, 문구, 카세트 테이프, 컴퓨터주변기기, 의약품, 운동기구, 악기, 장난감 등
3층	여성의류, 잡화(액세서리, 생필품, 화장품, 신발, 가방, 그릇), 아동복(기증품 및 위탁판매품), 가전제품, 실내장식품, 가구
4층	바자본부, 상담실
옥탑층	호박죽, 육개장, 만두, 음료 등

▲ 장소별 취급품목

여전도회에서 마련한 이 장터는 바자를 찾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배의 허기뿐 아니라 친교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행사가 열리는 양일간 점심과 저녁 식사는 전도회에서 실비로 제공한다.

이번 바자를 주최하는 남녀전도회에서는 재고가 많이 남아 교회에 다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나누는 일에 동참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특별히 비전2000운동 본부에서는 이번 바자에 태신자나 믿지 않는 이웃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전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 구역자와 신앙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VISION 2000

오늘 부서별 노방전도·잃은 양 찾기운동

기도와 전도운동인 96 비전2000운동이 오늘로 세번째 주일을 맞는다.

오늘은 부서별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교회학교와 찬양대의 전도대상 지역은 별표와 같다. 노방전도에 참여하는 성도는 반드시 어깨띠를 착용하여 전도자임을 표식하여야 한다.

부서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성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며 특별히 예배 후에 배부되는 전도지는 한주간동안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이번 한 주間は 다락방·전도회·교회학교의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주력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비전2000운동본부에서는 이를 위해 각 다락방·전도회·교회학교로 배부된 양식에 따라 장기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오늘까지 본부에 제출해 줄 것과 기도하며 심방하는 일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회학교	전도대상 지역	찬양대	전교인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교회 뒷편, 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임마누엘	나누어가진
중등부, 소망부	제일은행 뒷편 ~ 논현국민학교 주변	가브리엘	전도지로
탁아부, 유치부, 새가족부	영동시장		이웃에게
고등부, 장년부	제일생명 ~ 강남역	할렐루야	
대학부, 청년부	노보텔, 삼성호텔 부근		

▼ 부서별 노방전도 담당지역

한편 다음 주일 I·II·III 예배 시에는 교구별 노방전도가 실시되며 찬양예배 시에는 10월의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게 된다.

(관련기사 3, 4면)

지상
설교

교회의 특성(III)- 진리

이중운 목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장'이다.
교회설립기념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교회의 특성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기쁨과 거룩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으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기쁨과 거룩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1. 진리가 무엇입니까?

2천년 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진리란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며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진리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인격이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나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은 진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달라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때가 가까와 오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두번째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찢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14).

세번째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 19:7-8).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2).

네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16).

2. 진리로 거룩해지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또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거룩함에 나갈 수 없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딤후 4:5).

기도는 성도의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에 따라 지도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 되며 사탄의 제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순종함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 1:5 하).

다섯째, 사랑으로 거룩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요일 1:4-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므로 거룩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하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요 3:5).

일곱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고 악한 것들은 말씀으로라야만 부서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야 합니다.

3. 진리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권위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이 열 번 뒤집혀도 무너지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권위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선권을 바르게 선정하므로 거룩에 이를 수 있고 삶의 형태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6).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볼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삶의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으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언어를 성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번째 마크인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없고 거룩하지 못하면 참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구별된 삶을 살므로 거룩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설립 제5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전교인성경암송대회 예선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다. 암송범위는 예수님의 대체사장적 기도문인 요한복음 17장. 결코 만만치 않은 본문이지만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공부하며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예선은 11월 3일이며 결선은 11월 10일에 갖게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않을듯.

기독교교도소 추진 워크숍에 참가하여

기독교교도소의 청사진을 내다

이상진 (목사, 기독교교도소 추진위원회 간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목사)에서는 10월 11일(금)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도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1995년 10월에 발족한 이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기독교교도소 정황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왔다. 먼저 외국의 기독교교도소에 대한 방문보고와 아울러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또한 기독교가 감옥제도를 시작하였음에도 현재의 행형에서 그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행형 가운데서 기독교가 담당해야 할 교정교화의 사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독교교도소의 원칙이 될 행형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는 작업을 마쳤고, 또한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들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독교교도소로서 성공적인 사례인 휴

마이다교도소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상영되었다. 휴마이다교도소 출신이 사람들의 "... 여기 올 때까지는 수갑이 채워졌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수갑이 풀려집니다. 그 대신 사랑의 수갑을 차게 됩니다", "이 방은 '고문동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에는 오직 한 분만 갖혀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증언은 기독교교도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케 하였다.

비디오 상영에 이어 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기독교교도소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됨을 밝히고, 기독교교도소라는 구체적 시설을 제시하는 만큼 '기독교 교정프로그램(CCP)'이라는 구체적인 교도소의 운영내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법적 설립근거를 재확인하고 유형별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즉 각 교도소의 기존의 '기독교 방(房)에서 기독교 동(棟)으로' 확대하는 방안,

사회복귀 준비 프로그램 운영안 그리고 기독교교도소 설립 운영 등 유형별, 단계별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또 이 목사는 위원회가 이사회로 확대되어 실행능력을 더하게 될 것도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일수 교수(고대 법정대학장)와 김승규 고검부장검사는 "범죄자가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독교 개념의 행형 프로그램과 그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 청사진은 기본적인 연구단계를 마감하고 구체적인 연구와 실행을 예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목회자, 법조인, 법학자, 검찰 인사, 법무부 관계자, 교도소선교회 인사, 교정관계인사 등과 위원들이 초청되어 기독교교도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기독교 교정프로그램(CCP)?

Christian Correctional Program

우리는 모두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범죄자 한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면서 그 부담을 직접 지고 있다.

행형이 응보주의에 국한되고 범죄자에 대한 중벌주의가 고집되는 한, 사회는 영원히 가두어야 할 사람들만 만들게 된다. 재소자가 모든 관계에서 소외되는 행형에서, 도리어 소외해소와 관계회복을 이루어가는 행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재소자들이 자기존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여 자기회복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죄성을 자각하고 해결하도록 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회복의 길이라 할 것이다.

기독교 교정프로그램은 진정한 관계회복을 이루어가는 기독교의 신앙적 교정프로그램이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6 비전2000운동 대신자 명단 ②

전도자	대신자	전도자	대신자	전도자	대신자
주차련	주우철 강선이 안재근	김재술	황미선 이우선 김제영	김영자	최금순 오희태 김을호
최난수	최진철 최진삼 박인관		마호영 서종현 조성일		김홍술 최필진 정임순
	노항숙 최진석 엄을용		조선희 홍성원 김진희		김을호 최필진
	유희동 기정옥 이관호		김도경		심영섭 최순열 유효숙
	이성찬 이일순 임병식	김인숙	장덕영 조영미 최종화	김정희	심계은 김근희 김태자
한정아	김정철 박종섭	원복순	이경민 양남순 이재성		안원래 김태순 왕경옥
이자혁	편성범 유금순 김연숙		이영경 정문자 백광선		왕종숙
	조순이		황금화 권옥순		이명종 김영자 천경자
김동두	이용자 김홍각 윤양섭	황보추자	박종일 김진숙	송혜숙	조현종 신경희 신소희
	김홍진 김홍덕 이성실	제오복	제국삼 송사에 제홍섭		신희수 신미경
	김순자 박재에 김인용	전춘자	장주옥 강대수 최상식		조봉환 전유향 유인기
	김영구 김홍복 심홍선		서상호 김승옥 나경열	무 명	유영경
	조영식 박주성		지순희		김풍국 김 은 김소신
심재을	심계수 안 평 허규택	김인식	정인진 남영섭 남영철	김 희	송병렬 한장아 송용분
최근자	나도길 나점균 김순희		남영삼	무 명	임관순 원처은
	최평호 조정남 최은호	김중수	이복희 박문현 김강현		진승규 진승옥 김의수
정현숙	유삼순 박남숙 사양순	최정숙	박해원 박광원 박성원	최경애	진승복 성길홍
	홍성원 신희재 김영숙		박용복 채영미		
	송복선 박현주 고수연	김영자	장복현 김주순 김주섭		

다음 호에 계속

금주의 '96비전 2000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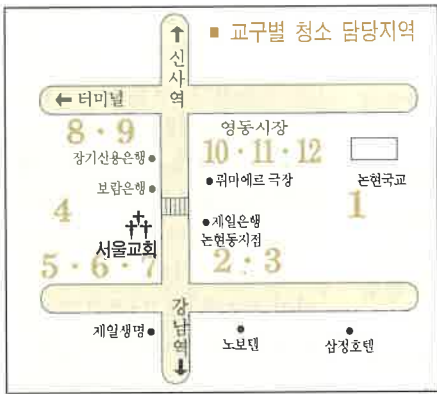
- ▶ I · II · III부 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부서별)
- ▶ 찬양예배 후: 전교인 합심기도회
- ▶ 매일 오전 5시 30분: 비전2000 새벽기도회
- ▶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다니엘 기도
- ▶ 매일: 연속기도회
- ▶ 각 모임후: 노방전도, 잃은 양 찾기(부서별 장기결석자 명단 제출)
- ▶ 23일(수), 24(목):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대신자 초청)
- ▶ 25일(금): 금요기도회(주관부서: 에스더, 사랑부, 장년부, 임마누엘찬양대)
- ▶ 26일(토) 새벽기도회 후: 교회주변 청소(청소도구 준비)

교회주변 청소
“사랑은 이웃에게” 실천

26일(토) 새벽기도회 후 온 성도가 교회주변을 청소하기로 하였다. 이는 비전2000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것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라는 비전 2000운동의 표어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기회이다.

이 청소는 교구별로 모여서 하게 되는데 1교구는 논현국민학교 부근, 2·3교구는 동경사거리 부근, 4교구는 교회 뒷편, 5·6·7교구는 제일생명사거리부근, 8·9교구는 보람은행부터 영동사거리부근, 10·11·12교구는 영동시장 부근을 담당하게 된다.

이 청소에 참가할 성도는 빗자루를 지참해야 한다.



전도자에게 약속된 것들

비전2000운동본부에 서울교회 마크가 새겨진 벽시계가 기증되어 실행위원들은 희색이 만연. 이 시계는 3인 이상 전도한 사람에게 매

주일 찬양예배 시 교회배지와 함께 부상으로 수여될 상품이다.

이 상품은 김시환·김정란 집사 가정에서 회사한 것으로 김 집사 가정은 작년에도 탁상용 시계를 기증하여 비전2000운동 기간에 전도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또다른 기쁨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별같이 빛나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교회에서는 꾸준한 상품을 약속하고 있다.

고3을 위한 기도회

고등부에서는 27일(주일)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3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

강남노회여전도회연합회 성가제 참가

서울 강남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주최 제9회 성가합창제가 15개 교회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목), 소망교회당에서 열렸다. 우리교회는 호산나찬양대(지휘:서희숙 집사, 반주: 홍혜란 선생)를 중심으로 여전도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이 성가제의 특징은 해마다 참가팀 모두가 1등이라는 것이다.

강남노회 부목사세미나

서울 강남노회(노회장 이수종 목사) 산하 부목사들을 위한 특별세미나가 11월 1일(금)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이 세미나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와 김기태 목사이다.



16일(수)에 거행된 10월 학습·세례식.

목회자·교우동정

* 이종윤 목사는 21일(월)부터 26일(토)까지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 4차 ALCOE대회에 참석한다. 아시아로잔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이 목사는 “세계 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단은 8명이다.

* 이영기·성준경·김상철·김영준 피택장로는 15일(화) 강남노회에서 실시된 장로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각각 합격하였다. 이들의 취임 및 안수식은 교회설립 5주년 기념일인 11월 24일.

* 강석우·나연신 집사 가정은 신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특별장학금을 기증했다. 이는 모친 김병숙 권사의 기도에 따른 것이라고.

'96 비전2000운동 기도제목

1.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전할 기회, 담대함, 지혜를 주옵소서.
2.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3.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옵소서.
4. 잃은 양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다락방 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5.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6.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와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7. 우리 교회와 놓여준 자매교회,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9 10월 28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예배의식과 교회력(H. 알렌 박사)
- 10 11월 3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 (최재덕 박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성령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바자를 위하여
2. 진리로 기록해지는 교회되도록
3. 진학과 취업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4.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